

요약본

정예농어업인 육성을 위한 중장기 로드맵 성과관리 및 농업인력 패널 구축

2013. 12.

농림축산식품부

정예농어업인 육성을 위한 중장기
로드맵 성과관리 및 농업인력 패널 구축

2013. 12.

연구기관명: 서울대학교 산학협력단

연구책임자: 김상태(서울대학교 농업생명과학정보원)

참여연구원: 조영수(서울대학교 농업생명과학정보원)

김규호(서울대학교 농업생명과학정보원)

이정애(서울대학교 농업생명과학정보원)

- 정부는 농산업을 둘러싼 대내외적 환경의 급격히 변화에 신속히 대응할 수 있는 전문농업인을 체계적으로 육성하기 위해 2004년 「정예농업인 육성 종합대책」을 발표하면서 2013년까지 2조 4,278억원을 투자할 계획을 제시하는 등 이때부터 국가적인 차원에서 농업인력과 농업교육에 대한 본격적인 투자가 시작되었음.
- 정부의 적극적인 정책 시행에도 불구하고 농업인력육성계획의 구체적인 성과목표와 로드맵이 명확하지 않고, 전반적인 정부의 추진계획에 비해 구체적인 사업들이 진행되는 과정에서 관련 이해당사자간 공감대 형성이 다소 부족하였음.
- 이에 정부는 2013년 “정예 농어업인 육성을 위한 중장기 로드맵 수립”의 연구를 통해 맞춤형 농정의 실현의 일환으로 중장기적으로 농정의 정책대상별 현재 진행되고 있는 사업과 신규로 진행되어야 할 사업을 도출하는 구체적인 로드맵 제시라는 연구 성과를 얻었으나, 이들 사업을 추진함에 있어 전체적인 정책목표와 세부 사업이 추진하는 목표에 대해 일관성 있게 추진되도록 하는 계획, 점검 및 평가하는 성과지표의 개발은 진행되지 않았음.
- 결국, 정부의 일관된 농업인력 육성정책이 효과적으로 그 성과를 거두기 위해서는 정부의 의지를 반영된 정책추구 목표와 각 사업들의 목표가 일관성이 유지되면서 진행될 수 있는 성과지표가 개발되어야 하고, 그 성과지표에 따른 ‘계획→과정→결과’의 단계별 성과가 정확히 측정되어야 함.
- 또한 수요자 중심의 농업 인재양성 서비스를 지속적으로 발전시키고, 정부의 정책효과를 조기에 가시화하고 구체적으로 얻기 위해서는 농업인재의 성장단계별 패널 구축도 매우 필요한 과제임.
- 따라서 본 연구에서는 ‘정예 농업인력 육성을 위한 중장기 로드맵’에 제시된 중장기 과제를 연차별로 정책추진의 시급성과 중요성 등을 감안하여 재정리하고, 이를 사업들이 진행되는 목적과 정부의 정책추진 방향을 연결하여 구체적인 성과를 제시토록 하는 성과지표 개발을 통해 정부의 정책에 대한 효과를 측정할 수 있도록 함.
- 본 연구는 기존에 도출된 정예농업인 육성에 대한 중장기 32개 과제에 대

해 현재 농림축산식품부의 정책기조와 향후 추진방향에 맞춰 우선순위를 정해야 하기 때문에 QFD방법론을 적용하여 각 과제에 대한 사업 우선순위를 결정함.

- 그 결과, 19개 과제로 최종 정리되었는데, 농업계 학교 경영체 맞춤형 교육 강화 등 5개 과제가 단기과제로, 농업법인을 통한 신규 유입인력 학습/정착 지원 등 7개 과제가 중기과제로, 그리고 농업교육 성과진단 체계 구축 등 6개 과제가 장기과제로 제시하였음.

구분	과제 및 사업
단기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농업계 학교 경영체 맞춤형 교육 강화 • 농업 마이스터 대학 프로그램 보강 및 프로그램 표준화 • 후계 농산업 경영인 장기 교육과정 운영 • 귀농, 귀촌인 교육과정 강화 및 프로그램 표준화 • 경영체 위기관리 교육 강화
중기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우수 중학생 농고 유치사업 • 농업법인을 통한 신규 유입인력 학습/정착 지원 • 농업분야 교육 학습 이력관리제 실시 • 기존 농업인 학습조직 발굴, 지원 및 자발적 학습조직 사업 활성화 • 광역단위 농업진로(취업) 지원시스템 구축 • 정예 농산업 경영인 육성, 지원을 위한 인력수급 전망정보시스템 구축 • 농업계 학교 농업 전,후방산업 인력유입 프로그램
장기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농업교육 성과진단 체계 구축 • 교원 연수, 교대, 예비교사 농식품 연구 프로그램 지원 • 농업법인 중간관리자 장기교육 프로그램 개설 • 지역/품목별 학습조직 육성 • 전문가 학습조직 육성 • 지역 농업인력 육성종합센터 운영

- 성과지표는 목표의 달성 정도를 측정할 수 있는 잣대로서 성과관리를 위한 가장 기본적인 도구임.
 - 전략목표와 성과목표의 내용을 대표함으로 인하여 정책에 대한 객관적 평가를 가능케 하며, 이를 통해 정책의 개선방향 설정과 합리적 추진을 가능케 하는 역할을 함.
- 이에 ‘정예농업인력 육성’이라는 큰 목표 아래 현재 추진 중이거나 계획 중인 세부 전략과 과제들의 구체적인 지향 및 성과를 측정할 수 있는 ‘성과지표’ 개발은 정책의 현실적 목표 규정 및 합목적적인 추진을 위하여 필수불가결한 일임.

- 성과지표 개발은 성과를 측정하고자 하는 과제의 궁극적 미션에서 출발하여 비전, 목표, 전략 등을 순차적으로 분석하는 가운데 이에 부합하는 지표를 개발하는 방향으로 수행됨.
 - 즉, 비전과 목표 달성을 위한 전략 도출의 기반 위에서 CSF(핵심성공요인: Critical Successes Factor)를 판단한 후, 전략 달성에 영향을 미치고 이의 성공 여부 및 수준을 평가할 수 있는 KPI(핵심성과지표: Key Performance Indicator) 개발함
- 예컨대, 본 연구에서 ‘공통지표’의 경우, 개별 정책과제들을 ‘정예농업인력 육성’과 이를 통한 우리 농업의 새로운 미래상을 창조하기 위한 미션 및 비전의 세부 ‘전략’으로 접근하여 CSF를 판단한 후 도출하였고, 개별 정책과제들의 성과지표 도출은 각 정책과제의 비전과 목표, 전략이나 내용 등을 검토한 바탕 위에서 채택하였음.
- 성과지표 검토 시 고려한 원칙으로는 전략적 정합성, 적절성, 관리 가능성, 측정 가능성 등의 네 가지를 대표적으로 들 수 있고, 성과지표 유형은 투입 지표, 과정지표, 산출지표, 결과지표로 나눌 수 있음.
- 정예농업인력육성 과제의 기존 미션 및 분류 검토 및 전문가 자문과 연구진 내부회의를 거쳐 ‘육성대상 정예농업인의 성격에 따른 분류’를 채택하고, 예비농업인 육성, 신규 농업인 육성, 전문농업인 육성 그리고 인프라 구축으로 세부 과제를 정리하였음.
 - 예비농업인 육성에 대한 세부과제는 농업계학교의 농업 전후방산업으로의 인력유입프로그램 개발, 농업계 학교 경영체 맞춤형 교육 강화
 - 신규 농업인 육성에 대한 세부과제는 농업법인 내 신규 유입 인력의 학습 및 정착 지원, 농업인 마이스터 대학 및 관련 기관/단체의 후계 농업경영인 장기 교육과정 운영, 농업인 마이스터 대학 및 관련 기관/단체의 귀농/귀촌 과정 교육 강화
 - 전문 농업인 육성에 대한 세부과제는 농업분야 학습 이력관리제 실시, 농업법인 및 생산자조직 내 학습조직 활성화, 농업 마이스터대학 프로그램 강화 및 표준화

- 인프라 구축에 대한 세부과제는 정예농산업경영인 인력수급 전망 정보체계 구축, 광역 단위 농업 진로(취업) 정보시스템 구축, 지역 단위 농업인력 육성 통합센터 운영 등임.
- 위의 주요 4대 과제그룹별 단계별 공통지표 pool을 기반으로 전문가 자문 및 업무 관계자 인터뷰, 연구진 내부 회의 등을 거쳐 과제그룹별 성과 지표 3~4개씩을 제시하였음.
- 예비농업인 육성에 대해서는 학업성취도, 기술숙달도, 취업률, 영농정착률
- 신규농업인 육성에 대해서는 영농정착률, 취업률, 연 소득, 연 매출
- 전문농업인 육성에 대해서는 소득 증가율, 매출 증가율, 피교육생 만족도
- 인프라 구축에 대해서는 진척률, 활용률, 이용자 수, 이용자 만족도 등을 공통 지표로 제시하였음.

구분	예비농업인 육성	신규농업인 육성	전문농업인 육성	인프라 구축
세부 과제	<ul style="list-style-type: none"> - 학업성취도 - 기술숙달도 - 취업률 - 영농정착률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영농정착률 - 취업률 - 연 소득 - 연 매출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소득 증가율 - 매출 증가율 - 피교육생 만족도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진척률 - 활용률 - 이용자 수 - 이용자 만족도

- 정예농업인력 육성을 위한 과제별 차별화된 지표 개발에 대해서는 다음과 같은 지표를 개발함.
- 농업계 학교의 농업 전·후방산업으로의 인력유입 프로그램 개발에 대해서는 정성지표로는 우수사례, 정량지표로서는 취업생의 임금 및 소득, 산업체의 취업생에 대한 만족도를, 농업계 학교의 경영체 맞춤형 교육 강화에 대해서는 정량지표로서는 교육생의 역량 변화율, 자격증 취득률, 취업생의 임금 및 소득수준을 들 수 있음.
- 농업법인내 신규 유입인력의 학습 및 정착지원에 대해서는 정성지표로는 지원 대상 선정의 타당성을, 정량지표로서는 참여인력의 만족도, 산업체의 만족도를, 농업마이스터 대학 및 관련기관/단체의 후계 농업인 장기 교육과정 운영에

- 대해서는 정량지표로서 학업성취도 평가, 참여자 만족도, 이수율(중도탈락율)을 들 수 있음.
- 농업마이스터 대학 및 관련기관/단체의 귀농·귀촌과정 교육 강화에 대해서는 정성지표로는 실습과 영농정착과의 연계성 확보 노력과 우수사례를, 정량지표로서는 참여인력의 만족도, 산업체의 만족도를, 농업분야 학습이력관리제 실시에 대해서는 정량지표로서는 학습성과도, 평생학습 참여율, 타인에게의 추천의향을 들 수 있음.
 - 농업법인 및 생산자조직내 학습조직 활성화에 대해서는 정성지표로는 지원대상 선정의 타당성을, 정량지표로서는 사업계획에 따른 진행률, 참여시간, 후속교육 참여의지를, 농업 마이스터대학 프로그램 강화 및 표준화에 대해서는 정성지표로는 프로그램의 적절성을, 정량지표로서는 계획 대비 프로그램 실행률, 이론 대 실습비율, 전문교수 확보 및 양성수를 들 수 있음.
 - 정예 농산업 인력수급 전망 정보체계 구축에 대해서는 정성지표로 이해관계자 요구의 사업반영 여부를, 정량지표로서는 홍보율을, 광역단위 농업진로(취업) 정보시스템에 대해서는 정성지표로는 활용 우수사례, 산업체 수요조사 여부를 들 수 있음.
 - 지역단위 농업인력 육성 통합센터 운영에 대해서는 정성지표로는 우수사례, 정량지표로서는 유형별 관련 서비스 제공건수, 취업률, 프로그램 개발 실적, 프로그램 이수자를 들 수 있음.
- 향후 이들 지표들이 제대로 관리되고, 운영되기 위해서는 각 과제별 과제 추진단계별로 성과지표 개발 프로세스를 확인하는 절차가 다시 이루어져야 하는데, 이를 통해 다수의 이해당사자의 의견이 검토, 수렴되어야 함. 또한 장·단기 과제추진에 따른 성과지표를 관리하는 성과관리시스템이 개발, 운영되어야 함.
- 농업인력 패널 구축의 목적은 정부가 추진하는 정예 농어업인 육성을 위한 중장기 로드맵에 따른 농업교육정책의 정책추진 효과를 객관적이고 합리적으로 측정하고, 농업·농촌 교육훈련 현황 및 농업교육을 통해 육성된 농업인이 성장하는 과정을 체계적이고 지속적으로 관리함으로써 정책추진의 효율성을 제고하는 데 있음.

○ 본 연구는 이러한 목적에 맞게 ‘신규 후계인력 양성 및 농업경영체 육성을 통한 전문 농업경영인 육성’이라는 정예농업인력 육성의 추진 목표와 그 추진 방향을 고려하여 (가칭) 예비농업인패널 및 (가칭) 농업인패널이라는 독립적인 2개의 농업인패널 구축을 제안함.

- (가칭) 예비농업인패널은 농업계 고등학교(영농정착 의향자) 및 농업 마이스터고 고3 재학생, 한국농수산대학교 포함 농업계 대학 3~4학년 재학생(영농정착 의향자), 귀농·귀촌 온·오프라인 교육 대상자(농정원) 등 예비농업인 대상 교육의 성과(고교과정, 농고-농대 연계교육과정 및 농대 미래 전문농업경영인 과정, 귀농·귀촌 교육 등) 및 교육 수료 후의 진로(진학 또는 취업 등)에 대한 이행과정과 실태를 파악하는 것을 주목적으로 함.

- (가칭) 농업인패널은 AGRIX 농업경영체 등록 농업인을 대상으로 영농경력, 나이 등의 기준에 따라 신규(후계)농업인과 전문농업인 등 유형별로 구분하고 각각의 성과지표에 근거한 교육·훈련 효과(성과)의 측정, 농업교육정책의 수립 및 평가, 농업인의 성장 과정에 대한 체계적인 추적·조사 등을 주목적으로 함.

구분	(가칭) 예비농업인패널	(가칭) 농업인패널
조사대상 (모집단)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농업계 고등학교 고3(영농정착 의향자), 마이스터고 고3 재학생(향후 지정/전환 고교 포함) - 한국농수산대학교 포함 농업계 대학교 3~4학년(영농정착 의향자) - 귀농·귀촌 온·오프라인 교육 대상자 (농정원) 	<ul style="list-style-type: none"> - AGRIX 농업경영체 등록 농업인 : 신규(후계)농업인, 전문농업인
조사목적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교육성과 측정 : 고교과정, 농고-농대 연계교육과정, 농대 미래 전문농업경영인 과정, 귀농·귀촌 교육 등 - 예비농업인 추적·조사 : 진로(진학 또는 취업)에 대한 이행과정 및 실태 파악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성과지표에 근거한 교육·훈련 효과(성과) 측정 - (농가경제현황 및 농업경영실태 파악) - 신규 및 전문 농업인 추적·조사 - 신규농업인 정착 및 전문농업인 성장을 위한 교육·인력 정책의 수립 및 평가
표본추출틀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교육통계연보 - 사업대상자 D/B 	<ul style="list-style-type: none"> - AGRIX 농업경영체 등록 D/B

○ 농업패널 조사는 설계 단계에서부터 패널 구축 및 운영전략 수립에 대한 충분한 사전검토와 철저한 준비가 요구되므로, 본 연구는 패널 구축 및 운영전략 수립을 위한 7대 중점사항(패널의 장단점 분석, 구축의 목적 및 활

용방안, 패널 모집단 정의, 패널 표본설계 방안, 패널 구축 세부 방안, 조사 내용 및 조사항목의 설계방안, 패널 운영관리 방안)을 제시하고, 이에 근거하여 단계적인 패널 구축 프로세스를 설계함.



- 먼저, 농업인력패널 구축 프로세스에 따라 (가칭) 예비농업인패널의 조사 모집단으로서 농업계 고등학교(영농정착 의향자) 및 농업 마이스터고 고3 재학생, 한국농수산대학교 포함 농업계 대학 3~4학년 재학생(영농정착 의향자), 귀농·귀촌 온·오프라인 교육 대상자(농정원 관리) 등을 대상으로 하였고, (가칭) 농업인패널은 AGRIX 농업경영체 등록 농업인을 조사모집단으로 하되 영농경력, 나이 등의 기준에 따라 신규(후계)농업인과 전문농업인 등 유형별로 구분하였음.
- 이어서 교육통계연보(및 영농정착 의향 관련 조사자료 등) 및 귀농귀촌 교육 대상자 D/B와 AGRIX 농업경영체 등록 D/B를 패널별 표본추출틀로 활용할 것을 제안한 후, 표본의 대표성을 높일 수 있도록 지역, 성, 연령 등 공통 증화변수 외에 패널별로 및 품목, 교육과정, 농업승계여부, 영농정착 경로 등을 주요 증화변수로 고려할 것을 제안함.
- 표본추출을 위해서는 일반적인 층화 추출, 비례할당 추출, 계통추출 방법을 고려할 수 있고, 표본 크기는 농업인력패널의 시범운영을 위해서는 일단

3,500명(예비농업인패널 1,500명, 농업인패널 2,000명) 수준으로 가져갈 것을 제안함.

- 본 사업을 위한 최종 패널규모는 시범운영에 대한 평가와 구체적인 조사모집단의 규모, 응답률, 가용 예산 등을 고려하여 결정되어야 함.
- 조사항목 및 조사내용은 크게 패널 기본 특성 자료와 패널조사 목적에 따른 세부적인 조사항목으로 구분될 수 있는데, 특히 세부적인 조사항목은 농업인력패널 조사의 목적을 충족시킬 수 있어야 하며, 측정 및 평가 가능성성과지표에 근거하여 설계되어야 함을 강조함.
- 마지막으로, 패널의 대표성과 조사의 신뢰성 확보를 위해 기 구축된 패널을 유지·관리하는 것이 매우 중요함을 강조하고, 패널조사의 참여율 제고 방안, 이탈 패널의 관리 및 보충 방안을 제시하고, 패널조사 관리를 위한 전담조직/인력의 중요성과 그 역할을 설정함.
- 지금까지의 농산업 인력육성 정책은 인력공급 위주로 농산업내 인력공급 목표치를 설정하고 그 목표치를 달성하기 위한 정책을 추진하여 왔음. 전통적인 농산업 생산기반의 인재양성 및 공급으로 미래 농산업에 대한 비전이 불명확할 수밖에 없었고, 그렇다보니 미래의 농산업 발전방향과 이를 견인할 수 있는 고품질의 노동력 수요에 부응할 수 있는 노동력 공급기반은 취약할 수 밖에 없었음.
- 또한 농업법인 등 농산업 경영체 역시 Entrepreneurship¹⁾ 역량 증진 교육 기회가 없어 실제 농산업내 인적·지적자본에 대한 중요성을 강조하기 보다는 물질 자본에 대한 투자확대에 집중하여 실제 농산업 현장을 혁신적으로 변화시키려는 노력 또한 미흡하였음.
- 이제 농산업을 기후와 토지 등 자연환경 종속적인 산업으로 인식하는 시대는 지나갔음. 이미 미래학자들은 농산업을 발전하는 국가가 선진국의 첫째 요건일 것임을 역설하고 있음. 농산업을 바이오, 제약 등 생명산업의 출발

1) 앙트러프러너십(Entrepreneurship)은 일반적으로 기업이 정신으로 명명되고있으나 일반적인 의미에서의 企業家가 아닌 창조적 파괴와 변혁을 통해 단순한 企業을 만들고 영위하는 것이 아니라 발전하여 새로운 업(業)을 일으키는 것을 뜻한다. 따라서 기존에 없는 혁신을 추구하는 창조적 상상력을 포함하며, 이를 실행할 수 있는 강력한 실행력과 변화를 통해 새로운 가치를 창출하고 위기를 기회로 만들 수 있는 변화대응력을 담고 있다. 그리고 아와함께 사회적 책임의식, 사회에 기여할 수 있는 연대의식을 필요로 한다

점이며, 생명자원은 인류가 허락한 가장 안전하고 지속가능하며 생명본질에 충실한 삶의 원천이기 때문임.

○ 결국 농산업의 발전시키는 것은 기술개발(R&D)이고, 기술개발과 사업화를 지속시킬수 있는 것은 농산업내 이를 담당할 인력을 육성, 양성하는 것임.

- 이웃 나라 일본은 이미 농업을 국가 신성장산업으로 규정하고 국가적인지원을 강화하여 식물공장이나 vertical farm, 도시농업 분야에서 세계 최초의 제품과 기술을 잇달아 내놓고 있고, 프랑스의 니콜라 사르코지 전 대통령도 “농업은 항공우주산업이나 나노테크놀로지 분야에 맞먹는 하이테크 산업으로 미래를 여는 열쇠”라고 정의함.

○ 2010년 한국공학한림원 농산업 경쟁력 위원회는 “농산업 환경변화와 10대 미래 유망 농산업 기술”이라는 보고서에서 향후 미래의 농산업 발전방향은 7가지로 제시하였음.

- BT 및 IT, NT 등 신과학기술의 융복합화를 통한 농산업의 영역 확장과 새로운 가치창출을 통한 무한 성장의 핵심동력으로 신성장 산업화

- 안전한 농식품 공급하는 산업

- 농식품의 수출 확대를 통한 글로벌 수출산업화

- 첨단 농업생산시스템을 통한 고품질 및 고부가가치 농산물을 생산하는 산업

- 환경오염과 기후변화에 대응하는 생명산업

- 에너지, 자원문제를 해결하는 원천기술을 발전시킬수 있는 산업

- 국토환경 보전과 지속적 농촌사회 발전이 가능한 복지농촌의 건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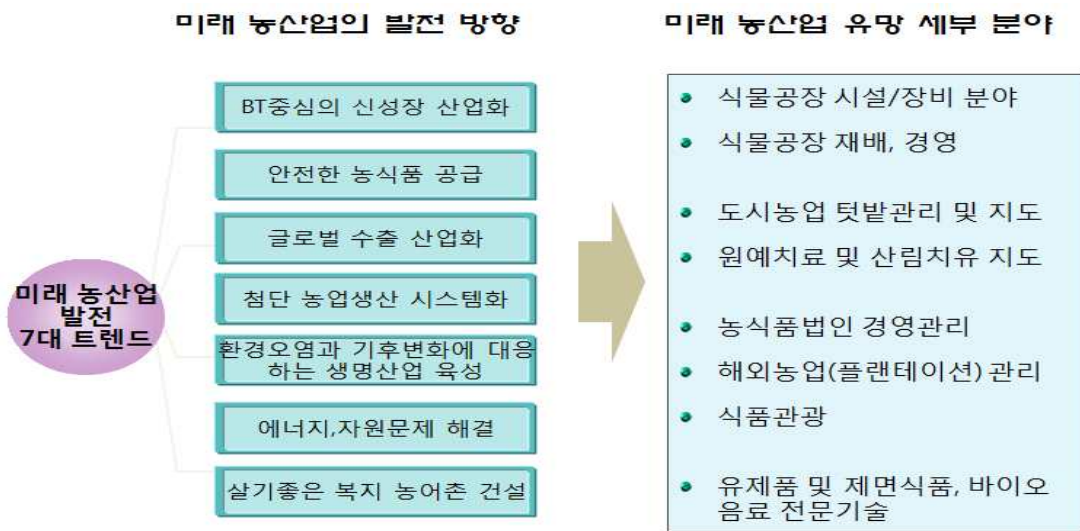
○ 이러한 미래 농산업 발전추세에 맞춰 향후 농산업내에서도 세부적으로 산업분화가 일어나게 되고, 농산업내 직업 또한 많은 변화가 예측가능함. 이와 관련하여 제시된 농산업의 미래 유망분야 직종은 다음과 같음.

- 식물공장과 관련된 스마트 팜 사업분야 : 식물공장 시설, 장비분야와 식물공장 재배 및 경영분야

- 생태·도시농업 분야 : 도시농업 텃밭관리 및 지도, 원예치료 및 산림치유 지도

분야

- 농식품 비즈니스분야 : 농식품 법인 경영관리, 해외농업(플랜테이션) 관리, Food Tour
 - 식품, 음료 전문기술 분야 : 유제품, 제면식품, 바이오음료 전문기술, 건강기능식품 등
- 따라서 미래 농산업에서 활동하게 될 인재들에게 유망 농산업 세부 분야에 대한 산업 및 직업정보를 지속적으로 개발, 제공함으로써 이들 직업분야에 진출하는데 필요한 자신감을 주고 준비과정을 지원하는 프로그램이 개발되어야 함.
- 2013년 한국과학기술정보연구원에서 발표한 미래 중소기업 비즈니스 전략아이템 50선에도 농산업과 관련된 식물공장과 건강기능식품 제조사업이 포함되어 있어 향후 이들 사업 분야에 필요한 농산업계 인력 진출이 증가할 것으로 예상됨.



[그림6-1] 미래 농산업의 발전 7대 trend와 세부 유망산업 분야

- 따라서, 미래 다양한 농산업 현장수요에 맞는 농산업 인력을 공급하기 위한 기반으로 미래 농산업 직업탐색 및 발굴을 위한 연구조사 기능을 강화해야

하고, 정예 농산업 경영인 육성, 지원을 위한 인력수급 전망정보체계를 조기 구축해야 함.

- 한국직업능력개발원에서 개별 산업별 직무능력 표준에 대한 연구를 진행하고 있으나, 농산업을 둘러싼 환경변화와 미래 농산업 발전방향에 따른 새로운 비즈니스 산업의 출현과 이에 따른 노동수요에 맞는 연구조사 기능을 항시적으로 진행하는 것은 한계가 있음.
 - 농림축산식품부 산하 한국농림수산식품교육문화정보원에서는 농산업내 인재 육성과 관련된 교육을 시행하고 있고, 매년 단기적으로 산업내 교육수요에 맞는 교육사업을 한시적으로 진행하고 있으나 일회성에 그치는 경우가 많아 실질적으로 중장기적으로 농산업 현장수요에 맞는 교육효과를 충분히 발휘하지 못하고 있는 실정임.
 - 따라서 한국농림수산식품교육문화정보원에 미래 농산업과 둘러싼 메가트렌드 환경 및 기술변화를 분석하고, 미래 농산업 인력수요를 분석할 수 있는 연구·조사기능을 강화함과 동시에 정예 농산업 경영인 육성, 지원을 위한 인력수급 전망정보체계를 지속적으로 운영할 수 있는 역량을 자체적으로 확보토록 하여 농림축산식품부의 중장기적인 인력수급 정책에 기여하고 자체적으로 효율적인 인력양성 교육프로그램 기획 및 추진이 가능토록 해야 할 것임.
- 향후 농업계 학교에서 배출되는 인력이 농산업내에서 진출하는데 중요한 역할을 맡게 될 농업법인 등 농산업 경영체의 현재 또는 미래의 경영자에 대해서는 단순한 농업 경영체, 법인 경영자가 아닌 농산업내 창의력과 신사고, 강력한 실행력을 겸비한 인적, 지적 자본으로 핵심역량을 강화하기 위해 起業家정신을 제고하기 위한 교육프로그램이 강화, 확대되어야 할 것임